

창조와 혁신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2015년, 경북혁신도시(김천시)에서
한국전력기술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됩니다

중앙과 지방의 경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창조와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설계기술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선진국 진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해온 한국전력기술이 경북혁신도시(김천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고 희망찬 도전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전력기술은 지역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책임있는 거점기업으로서 경북혁신도시를
미래 에너지 기술의 혁신과 창조의 중심이 되는
세계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newpower, newstandard
 한국전력기술

201507



Family



2015년 7월호



Family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 04 **K-Message** | 7월 경영 메시지
- 06 **Focus** |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시작했다 외
- 10 **명품기술** | 난분해성 폐수처리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14 **Benchmarking** | Power-Gen Europe 2015를 다녀와서
- 16 **우체통** | 신입(인턴)사원 교육을 마치며
- 20 **일하며 즐기며** | Culture Day <고리현장>
- 22 **문예** | <수필>어느 배달원에 관한 이야기
- 24 **Photo Gallery** | 한기가족 사진 콘테스트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8 **新성장지도** | 산간마을에 꽃피운 전통과 풍류 - 함양
- 34 **Storytelling** |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다
- 36 **기자칼럼** | 은행 고객들이 늙고 있다
- 38 **생활과 과학** | 모기와와의 전쟁이 매년 빨라지는 이유
- 40 **Culture** | Exhibition, Musical, Book, Movie
- 42 **KEPCO E&C News**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직위자 설명회 개최 외
- 44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 46 **인포메이션** | 헬스클럽 중도 해지 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 47 **에코포토** | 몸자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경제
영광
3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성장

통권 402호 · 발행인 박구원
발행일 2015년 7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전 화 031-289-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디자인생선가게(02-3673-2220)

작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성공의 김천시대를 열어 갑시다

사랑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2015년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서 아침바람에 치자꽃 향기가 배어드는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환점은 지금까지 달려온 결과의 의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게 합니다. 아직도 달려가야할 먼길이 남았기에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 매면서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심신이 지쳐올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개들어 주변의 동료, 선후배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과 격려, 나 자신은 물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꽃을 만난 듯한 새로운 일상의 선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긴장 속에서 여유와 격려를 통해 2015년의 성공을 향해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번 달부터 우리의 보급자리를 김천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한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점에서 2015년의 7월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20여년간 마북동에서의 추억, 더 멀리는 삼성동-여의도-공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수도권에서의 기억을 그리다보면 만감이 교차하기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도전과 창조, 글로벌 일류기업을 향한 다짐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확고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뜨거운 7월의 열기라 할지라도 우리 한기인의 의지와 열정에 결코 비할 바가 못될 것입니다. 각 부서장과 본부장이 중심이 되어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계획 아래, 성공적으로 이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망의 김천시대를 맞이해 가도록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과 고속도로를 오고가는데 있어서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6월 29일 공식 통보되었습니다. 산업부 산하 12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4개기관이 A등급(440%)을 받았으며, 우리 회사 등 3개기관이 B등급(380%)을 받고, 나머지 5개기관이 C등급(320%)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성과급과 직결되는 평가였던 만큼, 더 좋은 성적을 통해 더 높은 지급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는 많은 아쉬움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분석해보면서, 우리 한기 앞에 놓인 과제의 무게와 깊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선, 지난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원전 사태의 여파로 인한 국민신뢰의 위기는 여전히 우리 한기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향해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기가족 모두의 빠른 꺾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도 지수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기가 국민신뢰를 완벽하게 확보하기

전까지는 과거에는 사소한 수준의 문제였을지라도,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현재에는 한기의 이미지와 평판에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신뢰받는 한기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합시다.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간의 합의는 당초 정부의 완료 시점에 임박해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기가족 모두가 회사의 자존심과 위상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기에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단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영진은 출선하고 임직원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한층 더 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고도화 노력은 한기가족 모두가 상시적으로 유념하면서 챙겨나가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는 힘은 미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직하게 흠 한줄을 파나가는 노력을 시작하고, 그 노력이 하나가 된다면 분명 우리 한기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한기가족 여러분의 회사에 대한 헌신과 염려에 대하여 항상 마음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천시대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선배와 후배는 서로 손을 잡아 이끌어주면서, 주위의 동료와는 어깨를 나란히 부여잡으면서, 한걸음 한걸음 우직하게 도전하고 창조해 나가도록 합시다.

7월의 무더위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휴가의 설레임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좋은 시간은 꼭 챙겨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일
사장 박 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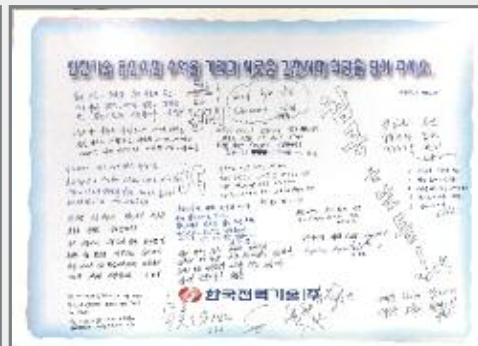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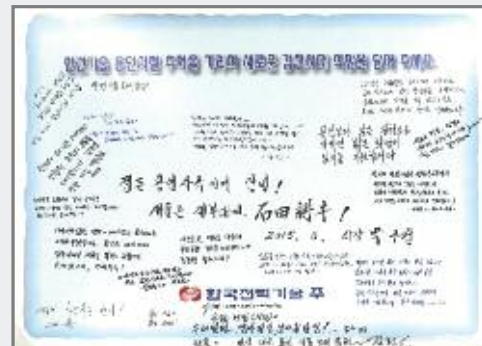
박구원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시작했다

7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회사는 새로운 보급자리인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사무실 이전을 시작했다. 7월 2일 용인 본사의 기획처, 감사실, 우리사주조합, ICT지원실 등의 이사를 시작으로 오는 8월 14일까지 부서단위로 순차적인 이전을 진행한다. 총 37개 부서 약 2,000여명의 직원들이 옮겨가는 본사이전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인력규모이다. 사무용 가구 등 이전대상 물품 총량만 해도 약 20,000CBM로서 5톤 차량 1,000여대에 분배에 달한다.

박구원 사장은 전직원에게 보내는 CEO메시지를 통해 “임직원 서로가 따뜻한 관심과 격려 속에서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계획 아래, 성공적으로 이전을 마무리 짓고 대망의 김천시대를 맞이해 가자”고 당부했다. 회사는 성공적인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선도함으로써 세계의 중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모든 임직원이 합심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3일에는 지난 1995년부터 20여년간 근무했던 용인사옥의 퇴거 감사제를 우리나라 전통 예법에 따라 실시했다. 이날 박구원 사장 등 임직원은 용인사옥에서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자축과 함께 그동안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용인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한편, 회사는 총 45일간의 이전기간 동안 고객 응대 및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협력사와 정보보안· 청렴문화 정착 다짐

정보보안 인식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
워크숍 실시

회사는 정보보안 인식 제고와 청렴문화 조성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용인 본사에서 협력사 임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정보보안 인식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협력사를 통한 해킹 등의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보안정책을 설명하고 보안 수준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아울러, 최근 범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안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설명도 실시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 보안 환경에 대비하여 공동의 협력체계를 모색했다. 또한, 지난 2013년 회사가 부패 방지 및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정한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회사와 협력사 모두가 청렴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문고, 부패비리 익명신고(레드휠) 등 회사가 도입하여 운영 중인 신고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부정과 비리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을 상호 다짐했다. 회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보보안과 청렴문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진정한 상생 및 동반성장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협력사와 단순한 협력관계가 아닌 상생 파트너로서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코트디부아르 CIPREL IV Volet B EPC 사업 수전 성공

우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CIPREL IV Volet B EPC 사업의 수전 성공 기념 행사가 지난 6월 12일 사업장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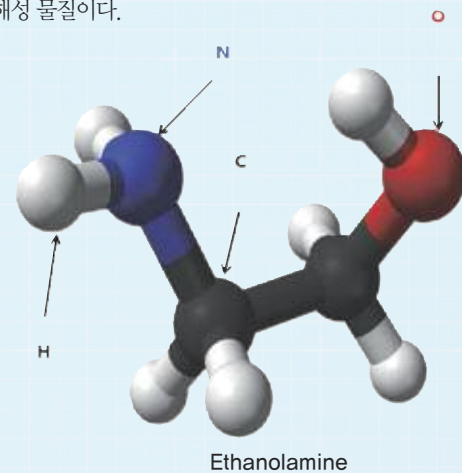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김재원 플랜트본부장을 비롯하여 오리엇(Horiot) CIPREL PM, 한라 박용재 소장 등 공사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수전(Power Receiving)은 시운전에 필요한 소내전력 확보 및 계통병입 후 송수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타 전원계통으로부터 최초로 전력을 공급받는 과정으로 단독 시운전을 위한 최초 공정이다. CIPREL IV Volet B EPC 사업은 6월 10일 수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시운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코트디부아르 CIPREL IV Volet B EPC 사업은 열악한 코트디부아르의 전력수급개선을 위하여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의 남쪽해안 브리디 석유화학공단 내에 기존 운영중인 가스터빈에 열회수증기발생기(HRSG) 2대, 스팀터빈(119MW) 1대, ACC(Air Cooled Condenser) 1대 등을 설치하여 복합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30일 착수되어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난분해성 폐수처리

난분해성 폐수는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처리로 분해되기 어려운 유기성 폐수를 말하는데, 방향족 벤젠고리 화합물과 할로겐화 유기화합물 등이 다량 포함된 염색, 피혁 및 도금 공정 폐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수소(Hydrogen)와 탄소(Carbon)로 이루어진 유기물들은 대부분 난분해성이며, 여기에 염소(Chloride)가 포함될 경우 독성(Toxic)을 함께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에탄올아민(Ethanolamine) 폐수 특성

발전소는 2차계통의 부식 등을 저감하기 위해 급수의 pH를 알칼리로 유지하는데, 이를 위해 에탄올아민(ETA, Ethanolamine)이라는 약품을 주입한다. ETA는 아민의 일종으로서 암모니아(NH₃)의 수소원자 하나를 Hydroxyethyl Radical(-CH₂CH₂OH)로 치환하면 생성되는 물질인데, 유전상수 및 쌍극자모멘트가 높은 매우 안정적인 유기화합물이며 폐수 중에 포함될 경우 처리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이다.



ETA는 발전소 2차계통에 주입되어 부식저감에 기여를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복수기 후단에 있는 복수탈염설비(CPP, Condensate Polishing Plant)의 이온교환수지 재생 시 수지에 포집된 ETA가 함께 배출되어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온교환수지 재생은 크게 'Exhaust Resin Transfer', 'Regenerated Resin Transfer' 및

'Regeneration with Chemical'의 세가지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약품을 주입하여 수지를 재생하는 'Regeneration with Chemical' 공정에서 난분해성 폐수가 배출되며, 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과 총 질소(TN, Total Nitrogen)의 농도는 약 3,000~4,000 ppm 내외로서 재래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ETA 폐수처리 방안 검토

현재 대부분의 원전에서는 복수탈염설비 재생 시 발생하는 소량의 고농도 ETA 폐수만 별도로 분리하여 대상량을 최소화하여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ETA 폐수를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증발농축설비를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각 관련업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증발농축설비를 난분해성 ETA 폐수처리설비로 적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기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Performance Availability이다. 처리수의 수량과 수질을 Customer가 요구하는 바에 맞출 수 있는지 성능 보증과, 특히 ETA의 특성으로 인한 Carry Over 현상의 대책과 관련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증발농축설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인 스케일과 부식에 대한 대책이다. ETA 폐수는 TDS(Total Dissolved Solids), Sulfate, Sodium과 Calcium, Magnesium 등의 이온성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전열관 내외부의 스케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원 폐수는 황산으로 인해 pH가 1 내외의 강산이므로 내부식성 재질 적용이 요구된다.

세번째는 Concentrate Treatment Method이다. 증발농축설비 유입 폐수는 증류액(Distillate)과 농축액(Concentrate)으로 분리되는데, 농축액에는 다량의 염이 존재하는 액상으로 배출되므로 별도의 처리를 통해 고상으로 만들어서 처분할 경우 건조설비가 추가되어야 하고 점성을 가진 폐기물이 건조설비에 고착되어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최종 농축액 처리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C



원폐수(ETA Wastewater)



증류액(Distillate)



농축액(Concentrate)



과포화 농축액(Sludge Production)





햇빛은 강렬하고 거리는 한산합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라고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꼭 껴야 된다고
앞집의 네 살짜리 꼬마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입을 가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맨얼굴을 보고 힐끔거리며 지나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으로 인해 메르스가 확산 된다는 듯
야유의 레이저를 쏘고 갑니다.

공포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떨면 떨수록 커지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상을 동원하기 때문에 더욱 무서워집니다.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이번 달 모임은 취소합니다.’
조심해야 마땅하지만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지 못함이 못내 아쉬워
가던 발길 멈추고 답장을 보냅니다.
‘마스크 끼고 만납시다.’

‘밥도 마스크 끼고 먹습니까?’ 라는 문자가 또 옵니다.

입가에 흘린 웃음이 미안합니다.
사명감 하나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고 싶어집니다.
하루 빨리 메르스가 소멸되기를 기원하면서...

Power-Gen Europe 2015를 다녀와서

Power-Gen Europe 2015는 1993년부터 시작된 유럽 최대 규모의 에너지-전력산업 관련 전시회로 매년 유럽의 도시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라이(RAI) 전시장에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2016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핵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기술, 파워 그리드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기술과 제품이 소개되었다. 전체 약 55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제품디스플레이는 물론, 대형 플랜트를 설명하는 3D 안경 및 스크린 시설까지 갖추어 놓아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네덜란드,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각 나라의 전시관이 설치돼 기업들을 소개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전시관을 운영했다. 총 12개의 한국 기업들이 장비, 부품, 펌프, 밸브, 스위치 등 플랜트건설 및 에너지 장비에 쓰이는 여러 가지 구성품을 주로 전시했으며, 한국 원자력 에너지 관련 부스도 따로 설치하여 정보 및 관련 부품 등을 전시했다.

밝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도시

인천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10시간 정도의 비행시간에 대한 걱정부터 앞섰다.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 먼 유럽까지의 이동이 큰 일로 다가왔다.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찾아갈 방법을 알아보면서 외국에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기차를 타고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내렸다. 중앙역에서 숙소까지 걸어가면 서 이 도시는 자전거와 노면 전차인 트램(Tram)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도심지에서는 매년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이곳은 공기가 좋았다. 자전거와 트램 위주의 교통체계와 같은 친환경 도로 정책 때문인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는 일에 쫓기지 않고 삶과 생활을 즐기는 여유와 행복감이 느껴졌다. 삶에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시차로 인하여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Google 지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숙소로 향했다. 숙소에서 체크인을 마치고마자 배고픔도 잊은 채 잠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쯤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일어나 근처 식당에서 허기를 달랬다. 북반구에서도 위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암스테르담은 해가 길어서 잠자리에 든 저녁 10시까지도 대낮처럼 밝았다.

Power-Gen Europe 전시회 참가

다음날 아침에는 Power-Gen이 열리는 곳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걸어서 출발했다. 오로지 Google 지도 하나에만 의지해서 대략 1시간 가까이 걸다 보니 암스테르담 RAI에 도착했다. Power-Gen 관련 문구를 확인하고 제대로 찾아 왔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걸어가는 동안에도 현지인들은 자전거와 트램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였다.

RAI 전시장에서 등록을 마친 후 곧바로 Power-Gen 관련 주제 발표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Power-Gen Europe 2015에서는 다양한 주제별로 각 회의실에서 발표가 진행되었다. 유럽의 전반적인 발전기술 동향과 세계내연기관협회(CIMAC)의 강의를 들었고, 발전분야의 다양한 회사에서 설치한 전시 부스도 관람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스발전소, 석탄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의 지속 가능한 기술과 제품들이 소개되었지만 각각의 주제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제시하는 것이 있었다.

유럽의 에너지 정책 및 동향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친환경을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Big Carbon Question)이 반영되어 있었다.

각 주제의 발표에서는 전기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길은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각각의 연료원 및 발전방식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발표된 자료(여러가지 가정과 전제 조건하에서)에 의하면 톤당 20유로의 탄소세(2015년 7월 2일 기준 7.5유로에 형성)를 부여할 경우 발전단가는 수력발전이 가장 낮고, 가스복합발전, 가스엔진, 원자력발전, 석탄, 풍력, 태양광 순이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톤당 80유로의 탄소세를 부여할 경우에는 수력발전 다음으로 원자력발전이 발전단가가 낮고 석탄화력이 풍력과 유사한 발전단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의 탄소배출규제에 대비하여 석탄화력의 발전단가를 낮추는 연구자료가 발표되었다. 전력수요가 많아 전력단가가 높은 시점에서는 석탄발전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수요가 낮아 전력단가가 낮은 시점에서는 석탄을 이용한 메탄올을 생산하여 저장하는 방식이다. 정비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에 설비를 가동하여 이용률을 높여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이산화탄소 톤당 탄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추후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고 에너지의 단점인 날씨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주요 경쟁인 전력을 저장하는 방법(Electric Energy Storage)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력이 잉여로 생산될 때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자동차의 연료원으로 사용하거나 가스 배관망을 통해 공급 및 저장하여 가스엔진과 가스발전소에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전체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생산되는 전력을 대형 열 저장 설비를 사용하여 열 형태로 저장한 후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의 공급이 단시간에 중단될 경우, 가장 빠르고 단시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 대형 가스엔진발전소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내연기관을 이용한 가스발전은 가스터빈을 이용한 복합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비하여 효율이 낮지만 가동성 면에서는 단 몇 초에서 몇 분만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주요 보완 수단임을 제시하였다. 가스엔진발전소를 열병합 발전소(Co-Generation)처럼 고온의 배열을 회수, 저장 후 공급(전체 효율 70% 정도)하는 시스템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흔히 보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하여 에너지원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력공급의 신속성과 에너지 전체 효율 70% 이상을 통한 효율 상승이라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연구와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번 Power-Gen Europe 2015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성과 연료 및 운전의 유연성을 구비한 내연기관발전소의 새로운 의미와 최신형 내연기관발전소 기술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발전소는 천연가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소 및 수소를 혼합한 가스와 다른 바이오 가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스연료 성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스터빈 보다 사용연료에 대한 유연성(Flexing the power of gas)이 우수하고 열병합으로 운전시 에너지 전체 효율도 70% 이상으로 친환경적임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내연기관의 특성은 기동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발전이 가능하고, 정상출력과 최대출력까지도 단 시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정지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발전이 정지되는 운전의 기동성과 유연성까지 있어 유럽의 신재생에너지와 최적의 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즉, 기존의 관점을 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각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현실화 방안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유럽 선진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기술에 대한 앞선 투자를 통하여 더 많은 부를 얻고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단기간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기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이익을 당장의 배부름에 사용하는 것보다 아껴서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에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외에도 새롭게 다양한 기술에 대한 관심과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짧지만 유익했던 Power-Gen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발전기술 분야에는 개척해야 할 기술과 상용화 해야 할 기술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C**



신입(인턴)사원 교육을 마치며

미래를 위한 준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6년간 지질학을 전공하며 인생의 목표를 성공이 아니라 성장으로 정했다. 취업을 위해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인생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한국전력기술을 목표로 삼아 왔다.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다. 가슴조리며 결과를 확인하고 합격을 확인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합격소식을 듣고 나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에 가슴속으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2014년 11월 24일 설렘과 기대를 안고 연수원에 입소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합숙연수를 위하여 용인 본사에 집합하여 버스를 타고 충주의 건설경영연수원으로 이동하였다. 도착 후 강당에 모여 가장 먼저 사원증을 받았고 사진과 이름이 적힌 사원증을 보는 순간 드디어 한국전력기술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연수원에서 함께 지낼 조를 배정 받았고,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조원들은 나를 조장으로 뽑아주었다. 뽑아준 조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조원들은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을 합쳐야 하는 순간에는 개성이 각 분야에서 장점으로 발휘되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연수원에서의 교육은 직장예절, 프레젠테이션, 기획력 등 앞으로 회사생활을 하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아이스브레이킹, 아카펠라, 체육활동 등을 통해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2주차 교육에서는 사장님과 본부장님 등 여러 임직원으로부터 회사의 역사와 조직,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특히 박구원 사장님은 우리 회사 출신 사장으로 회사와 성장을 함께하시며 겪으신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고, 업무와 회사생활에 있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입사를 준비하며 나름대로 회사에 대해서 많이 익혔다고 생각했었지만 교육을 통해 회사에 대해 더 많이 느끼게 되었고, 정말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애사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연수원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팀 프로젝트 준비와 발표였다. 조원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많은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바뀌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한 탓에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주말에도 모여서 준비를 하는 등 모두가 힘들고 지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원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힘이 되어 주었다. 자료수집과 분석, 발표자료 작성 및 발표준비에 있어서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매워가며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발표를 준비하며 우리 조원들은 협력과 이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연수원 교육이 끝나고 각 부서로 배치되었다. 원자력본부 동기들은 본관 회의실에서 본부장님을 포함하여 각 그룹장님들과 상견례를 하였다. 본부장님과 그룹장님들이 우리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축하를 해주셔서 그런지 연수원에서보다 더 깊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부서로 이동하여 팀 배치를 받고,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리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었다. 선배님들은 우리들이 낯선 사무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회사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앞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도 주셨다. 처음에는 생소한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공부도하고 자유롭게 질문도 해가며 하나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위풍도 당당한 한국전력기술의 일원

부서에 배치되어 약 50일간 OJT 교육을 받았다. 원자력 토목건축기술그룹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와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 수행할 업무의 밑바탕도 다질 수 있었다. 교육을 해주신 강사님들도 교육을 위해 교육 자료를 준비하시고, 신입사원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 등의 첨부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다. 교육의 대부분이 생소한 내용이라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배운 내용을 복습하다 보니 점점 이해도가 높아졌고, 하루빨리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수원 교육과 부서 OJT 교육을 받는 5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지식을 쌓은 성장한 모습에 대견하기만 했다. 입사 전보다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 회사에 입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김천으로 사옥을 이전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쌓아 오신 선배님들의 수많은 지식과 전통을 이어 받아, 김천시대에서는 우리 39기 신입사원들이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신화를 이룩하리라는 다짐을 해본다. **E&C**

신입(인턴)사원 교육을 마치며

시작을 배우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지원하게 된 첫 회사!

한국전력기술에 입사하게 된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었다. 입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인턴기간 동안에도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첫 사회생활 이다 보니 부족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았다. 어렵고 두려움이 앞섰지만 연수원에서 직장예절을 배우고 부서배치 이후 동기들과 상황에 맞는 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어서 회사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선배님들 또한 매우 친절하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첫 직장이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이다 보니 쾌조의 인생 출발을 한 것 같다.

3S란?

연수원 기간 동안 한국전력기술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사가를 배우고 회사의 연혁을 공부하는 등 회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자 열심히 교육에 임했다. 교육은 박구원 사장님을 포함하여 각 본부장님들이 오셔서 해주셨다. 본부장님들은 플랜트와 원자력에 대한 소개와 신입사원들에게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 사장님은 평생을 한국전력기술과 함께해온 역사를 들려 주셨다.

사장님의 연설 중 인상 깊었던 것은 3S였다. 3S는 Story, Style, Study로 그 의미는 Story가 있는 사람이 되어라(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설처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였다. 자기만의 Style과 Study를 통해 지식을 쌓아서 전문가가 되라고 동기를 부여하셨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온 가르침이었다.



OJT 교육

OJT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플랜트 기계배관기술그룹으로 배치되어 플랜트 설계에 대한 기초지식과 부서생활에 대한 여러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OJT 교육시간 중 전공지식이 부족하고 생소한 내용이 나오자 머리가 과부하 상태가 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조급해지지 말자고 다짐했다. 엔지니어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하고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다.

이제 나는 교육과 선배님들의 모습에서 배워온 것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제39기 신입사원

우리는 제39기 신입사원으로서 임용식을 가졌다. 한국전력기술 직원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책임감과 긴장감 속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하는 신입사원이지만 사소한 업무의 실수가 곧바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우리 회사 선배님들의 자긍심을 이어받아 더 나은 기술력을 갖춘 엔지니어로 보답할 것이다. **E&C**



Culture Day

고리현장

고리현장사무소는 2015년도 컬처데이(Culture Day) 행사를 지난 6월 10일 실시했다. 이번 컬처데이 행사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전염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행사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은 환자 및 격리원인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진행하게 되었다. 컬처데이 프로그램으로는 약 4시간 코스의 등산을 하자는 배재환 소장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분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 발전소 인근의 갈맷길 트래킹으로 최종 합의했다.

부산의 명품, 갈맷길

갈맷길은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와 '길'의 합성어로 산, 바다, 강을 아우르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갈맷길은 9개 코스 20개 노선으로 총 길이만 263.8km에 이른다. 갈맷길을 걸으며 자연을 벗 삼아 그림의 가치를 추구해 보는 것도 좋다. 고리현장 특성상 거리는 가깝지만, 건설 및 가동사무소가 떨어져 있고 오랜만에 만나 분위기도 어색했지만 맛있는 점심도 같이 먹고 동료들의 지난 안부도 물으며 걷다보니 모두 소풍을 나온 아이들의 기분이었다.

직원들의 들뜬 목소리와 화가에애한 정담이 울려 퍼졌던 점심식사를 마치고 갈맷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이동했다. 현장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용성 부장이 최선두에서 인솔했다.

갑작스런 트래킹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벌인 이벤트는 중간 중간에 돌발퀴즈를 풀면서 경품도 타고, 새로운 상식을 쌓을 수 있어서 재미를 더하였다. 돌셋씩 짝지어 걸으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환상적인 경치를 만끽했다. 처음에는 한낮 땀방에 걷는다는 생각에 불만도 터져 나왔었지만, 구름이 드리운 날씨가 강렬한 태양을 막아주어 예상했던 것보다 갈맷길 트래킹은 즐거웠다.

항수가 어린 송정기차길

갈맷길 코스가 너무 짧은 아쉬움에 기차가 다니지 않아 인기가 있는 송정기차길 트래킹 코스를 더 걷자는 의견이 나와 철길을 따라서 바다를 바라보며 걸어보았다.



와우산 기슭의 동해남부선 철도(부산~경주, 1934년 7월 15일 개통)는 거리가 가까운 좌동 ~ 송정역을 연결하여 만든 우리나라 유일의 임해철도선이었다. 지난 2013년 12월 2일 해운대 도심을 지나는 우동 ~ 기장 구간의 복선화가 완료되어 해안절경을 관람할 수 있는 동해남부선 해안 철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해운대 미포, 청사포, 구덕포 등 해안절경을 끼고 있는 이 곳 철도부지는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형 여가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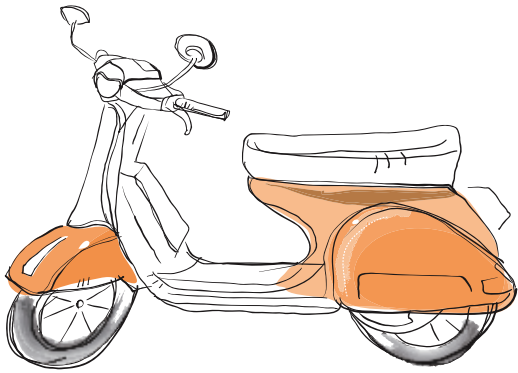
뒤돌이

말문이 터져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덧 해는 지고... 철길을 따라 한 시간 정도 쫓 걸어서 저녁식사 장소인 갯마을에 한명의 사고자 및 이탈자도 없이 도착하였다. 간단한 주류와 저녁식사를 맛나게 하면서 행운권 추첨을 하였다. 호명된 직원들은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였고, 팡이 나온 직원들도 허허 웃으며 기분 좋게 서로 축하해 주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신고리건설현장과, 고리 RET 직원을 포함하여 협력업체 직원, 통근버스 기사님 및 미화아주머니 등 모든 직원(30명)이 그동안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렸다. 비록 메르스로 인한 행사축소 및 일정변경 등 사전준비와 진행이 미흡한 행사였지만,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직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행사를 마치게 되었다. 고리현장 파이팅! E&C



〈수필〉

어느 배달원에 관한 이야기



1년 전의 이야기이다.

한국전력기술이라는 회사에 당당히 입사한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대전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다. 꿈꿔왔던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배워가는 즐거움에 푹 빠진 아들은, 평일에는 하루하루를 바빠 보내고 있었지만,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이라 그랬는지 주말에는 적적함을 느껴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부천에 올라오곤 했다.

아들이 취직한 때부터 우리 가족에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 아들이 올라오는 금요일 저녁마다 일주 일 만에 모인 우리 가족은 아들이 평소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금요일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무언의 약속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족만의 ‘볼금’이었다. 모두가 집에 모여 살 때보다 오히려 떨어져 지내며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 날도 어느 때와 같이 늘 주문하던 집에서 같은 메뉴의 치킨을 시킨 날이었다. 올라오는 길에 버스가 많이 밀려 저녁도 먹지 못하고 집에 늦게 도착하게 된 아들을 위해 큰딸이 치킨을 주문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5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혜진아, 주문한 거 맞니?”

“아까 아까 주문했어요. 엄마 벌써 두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생을 오래 기다린 탓에 배가 너무 고팠던 딸은 불멘소리로 대답을 했다. 순간 나도 서운함에 기분이 핵 상해버렸다. 그때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문을 열어달라는 인터폰이 울렸다. 피곤함과 배고픔에 푹 찌들어버린 가엾은 아들이었다.

아들은 올라오자마자 먹을 것부터 찾았다.

“엄마 배고파. 치킨파티 하자.”

“아이구, 우리 아들 배 많이 고프겠다. 근데 치킨이 아직 안 왔어.....”

아들은 아무 말은 없었지만, 실망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설레며 기다렸던 우리 가족의 ‘볼금 파티’가 어긋나버린 것만 같아 더 속이 상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놈의 닭집은 집 코앞에 있으면서 왜 안 오는 것인가.

그때, 또 다시 1층 현관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반갑기도 했지만, 아속한 마음이 더 컸다. 배달원을 보면 단골손님으로서 한 소리 해야겠다고 단단히 버른 채, 두 손에 만 칠천 원을 꼭 쥐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21, 22, 23, 24

평등.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기다리는 화가 난 내 표정을 보고, 배달하는 청년은 흠칫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주문이 많이 밀려서요.....”

“아니 아무리 밀려도 그렇지, 한 시간을 기다리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네요. 가게랑 집이 이렇게 가까운데. 우리 애들이 한참 기다리다 너무 배고파서 취소하려고까지 했어요.”

“죄송합니다.....”

“만 칠천 원이죠? 여깁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죄송합니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소심하게나마 클레임을 걸고 나니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리고 맛있는 양념 냄새를 맡으니, 배고파도 차마 내색도 못하고 있던 내 배꼽시계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배달하는 청년이 눈에 보였다. 우리 아들보다 대여섯은 더 어려 보이는 어린 청년이었다. 더운 여름날, 땀에 젖어서 배달하는 저 청년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으며 다녔을까? 아마 다음 집에서도 나와 같은 원망을 또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던 청년이 갑자기 측은해졌다. 우리 아들 딸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따졌지만, 사실 저 청년도 어느 집에서는 귀한 아들일 텐데. 어머니뻘 되는 손님에게 이런 푸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통에 그토록 기다렸던 치킨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 코로 들어가는 지도 모른 채 먹었다. 그 이후로는 배달이 그 정도로 늦은 일도 없었지만, 나 또한 배달이 늦게 온다고 재촉하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배달하는 청년에게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도 꼭 챙겨 하곤 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이었다.

어느 때와 같은 금요일이었고, 아들이 오기 30분 전에 우리는 그때 그 집에 또 주문을 했다. 딸아이는 더운 여름엔 시원한 맥주랑 마셔야 한다면, 이름도 읽기 어려운 수입 맥주를 종류 별로 사다 놓고 즐거운 ‘볼금 파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도 주문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배달원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번 보다 더 심한 것 같았다. 치킨 집에 전화를 해 보아도 한참 전에 출발했다는 말 뿐이었다. 아들은 쭈뼛 굶은 채 아직 올라오는 길이었다. 나는 술술 조바심과 짜증이 났지만, 몇 주 전의 웅크렸던 내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써보았다.

주문한 지 한 시간이 넘어서야 인터폰이 울렸다. 이번엔 아들보다 배달원이 먼저였다. 한걸음에 내달려 배달원을 맞이했는데, 배달원은 어쩐지 불쾌해 보이는, 그리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땀을 유난스럽게 뺄뻔 흘리고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주문이 많았죠? 만 칠천 원 여기.....”

그 때, 배달원의 얼굴에서 땀방울이 똑똑, 치킨 상자 위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상자 위였지만, 그래도 어쩐지 불편한 기분이 들어 나는 얼른 냅아채뚫 상자를 받아들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수고하세요.”

짧은 인사를 건네고, 문을 닫자마자 또 한 번 인터폰이 울렸다. 이번엔 아들이었다.

아까 배달원을 맞이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 톤으로 아들을 반겼다.

“올라오느라 고생 많았지? 치킨 방금 왔어. 얼른 씻고 나와서 먹자.”

그리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치맥 파티가 시작되었다.

“엄마, 나 좀 아까 사고난거 봤다.”

“응? 무슨 사고? 큰 사고 났어?”

“아니. 그냥 좌회전하던 차량 오토바이랑 살짝 부딪혔어. 크게는 안 다친 거 같은데.....”

“근데?”

“근데, 그 사고 난 오토바이가 우리 집에 치킨 배달하러 오던 오토바이였어.”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그래도 차에 바친 건데 왜 병원을 안 가고.....”

나는 말을 하다가 다 잊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는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와 같은 고객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또 같은 집에 주문을 했다. 역시나 배달원은 바뀌어 있었다. 사고를 내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으리라 짐작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잠시 병원에서 쉬는 것이라 믿고 싶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어디서나 존중받고 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족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남을 아끼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남을 해치면서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이다.’

얼마 전, 정민 교수의 칼럼에서 본, 명나라 때 사람 주국정(朱國禎)의 말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 서비스로서 대우하는 각박한 사회 속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말이다. **E&C**



한기가족 사진 콘테스트



반드시 일어날꺼야

김영국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과장

어려운 수술을 끝마치고 회복실에서 한 컷 !
어려운 과정을 몇 번이나 넘기고 다시 얻은 생명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희망을 잃지말라는 메시지를
회사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다.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언젠가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



통일의 염원을 그리며 태종대에서 출발하여 임진각으로 고고~

박진경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부장

통일이 되면 부산 태종대에서 신의주, 평壤마을에서 나진 두암까지 달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성한
대한출발마라톤 동아리~ 평壤 마을에서 강원도 회북단 고서 통일정방대까지(622Km)
그리고 부산 태종대에서 경기도 회북단인 임진각까지(537Km) 달림이들이 달리고 있다. 통일의 염원을 그리며
부산 태종대에서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가는 중에 450Km 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다.

C ommunication

양귀비꽃이 피었습니다.
예전엔 구경도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을
따뜻한 눈길만 있다면 시간과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목에 감긴 명주 천 같이 얇디얇은 꽃잎.
첫사랑의 설렘 같은 양귀비라는 이름의 녀석들 만나러
집 근처 공터로 나왔습니다.

언젠가 중국 서안에서 보았던
석고로 만든 당나라 현종의 똥똥이 아내와는
이름만 같았지 건줄 바가 못 됩니다.

숨어 살피고_
눈을 마주치고_
수줍은 미소를 짓고_
당신도 첫사랑과 그랬었나요.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뒤에서 서성이던,
돌아보면 그때가 참 순수했었다는,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기억이라는데
하늘거리는 자태에 아련한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이제는 관조라는 여유 속에서 바라 볼 수 있음도 좋군요.

새벽잠 깨우는 새소리,
우산을 펴지 않고 일부러 맞아보는 빗방울,
맨발로 찰방거리며 뚫아보는 개울물,
작고 소박한 것에 더 눈길이 가는 요즘입니다.

좋은 일이야 생기면 좋지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함양

산간마을에 꽃피운 전통과 풍류



지리산 동쪽에 자리한 함양은 대진 고속도로가 뚫리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찾아가기 힘든 경상 남도의 한지였다. 전라북도의 세 산간인 무주, 장수, 진안에 덕유산 육십령을 더 넘어야 닿을 수 있었으니 그 옛날 이곳이 얼마나 외떨어진 곳이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진 땅에는 조선의 선비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전통들은 경상북도 안동 땅에 견줄만 하였으니 '좌 안동 우 함양'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그 중심에는 정여창이라는 인물이 있다. 함양의 선비문화와 원시계곡을 간직한 지리산 동쪽 골짜기들을 돌아본다.



01 두글자씩 따로 현판을 만든 것이 특이하다 02 정여창의 제자들이 그를 기려 세운 남계서원 03 정여창 고택의 안채

선비의 풍류가 스민 화림동의 정자들

함양을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산자락은 덕유산이다. 지리산에서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마루 고개인 육십령은 전라북도 무주와 함양사이를 오가는 관문이다. 덕유산은 이 육십령 길과 나란히 하여 하천을 흘러보내니 곧 남계천이다. 육십령을 넘어 함양 땅으로 접어들면 남계천을 따라 수려한 강 풍광을 지닌 경치 좋은 길이 이어진다. 이곳은 화림동 계곡이라 불린다. 화림동 남계천변은 예로부터 선비들이 정자를 지어놓고 자연과 더불어 사색을 즐기던 공간이었다. 원래 여덟 개의 정자가 자리하여 화담팔정이라 불리었으나 지금은 세 개의 정자만 남아있다. 육십령을 넘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연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누각으로 들쭉 날쭉한 바위에 주초석으로 높낮이를 맞추어 세워져 있다. 1613년 중추부사를 지낸 전시숙이 세웠으며 1885년 후손들에 의해 중건되었다. 정자 가운데 한 칸짜리 방을 두고 방문을 뚫 수 있도록 했다. 윤선도의 동척선실이나 소쇄원 광풍각의 조출한 정자를 연상케 한다. 남계천은



04

수량이 줄어들어 옛날만큼의 운치는 아니지만 계곡에 가득한 기암들이 볼만하다. 군자정은 거연정으로부터 200m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다. 물가의 너른 바위에 사뿐히 올라앉은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누각이다. 조선 성종 때의 대학자인 정여창이 시를 읊었던 곳이라 하여 군자정이란 이름이 붙었다. 동호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이다. 누각으로 오르는 멧대로 깎아 걸친 나무계단이 인상적이다. 남아있는 정자들 중 가장 너른 계곡에 자리하고 있는데 정자 앞에는 길이 60m, 폭 40m의 거대한 암반이 섬처럼 솟아 있고 바위에는 금적암, 영가대 등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천변에는 돌다리와 산책로가 잘 가꾸어져 자연과 교감을 나누던 선비들의 흥취를 느껴볼 수 있다.

조선 성리학의 5현, 함양 사람 정여창

함양 출신의 정여창(1450~1504)은 조선 성종 때의 대학자로 함양을 선비의 고장, 안동과 견줄만한 ‘우함양’으로 불리게 된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공부하다가 함양군수를 지내던 김종직에게 글을 배웠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세자에게 강론을 하는 시강원 설서를 지낼 만큼 학문이 뛰어났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중국의 사신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눈여겨 본 중국사신이 “커서 가문을 크게 번창하게 할 것이니 이름을 여창(女昌)이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안의현감을 지낼 때는 일처리가 공정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학덕이 출중하여 우리나라 성리학사에서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함께 5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연산군 때 스승인 김종직과 더불어



06

04 함양상림에 지천으로 핀 도라지꽃 05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관문 오도재 06 정여창 고택. 솥을 대문에 붉은 현판이 내걸려 있다 07 단아한 툇마루에서 고택의 운치가 느껴진다 08 고택 뒷담에 능소화가 가득 피었다



07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함경북도 종성으로 유배되어 죽었다. 훗날 그의 제자들이 그를 기려 세운 남계서원은 영주 백운동 서원 다음으로 오래된 서원으로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살아남은 47개의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지곡면 개평리에는 그의 고택이 자리하고 있다. 개평마을은 정여창 고택 말고도 여러 채의 한옥과 돌담길이 이어져 전통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곳이다. 돌담과 골목 곳곳에 능소화와 도라지꽃이 지천으로 피어 옛 마을의 오롯한 운치가 느껴진다. 정여창 고택은 안채와 사랑채, 안사랑채, 아래채, 곳간채, 별당과 가묘, 작은 정원까지 가꾸어져 옛 양반가옥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정식명칭은 그의 후손의 이름을 딴 정병호가옥이다. 중요민속자료 186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리산 동부, 소문난 계곡비경

마천면의 백무동은 산청 중산리 다음으로 지리산 주봉인 천왕봉(해발 1,915m)을 짧게 오를 수 있는 코스이다. 익숙한 산꾼이라면 4, 5시간 만에 오를 수 있지만 경사가 급하고 습기가 많아



05



08



09



10



11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다. 그러나 청정계곡의 묘미를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함양에는 지리산의 수많은 계곡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에서 시작되는 칠선계곡은 설악산의 천불동, 한라산의 탐라계곡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계곡 중 하나로 손꼽힌다. 칠선계곡은 추성마을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18km의 긴 구간인데, 빼곡히 들어찬 원시림과 선녀탕, 칠선폭포, 대륙폭포 등 7개의 폭포수와 33개의 소가 볼만하다. 특히 1999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묶여 탐방이 불가능했기에 더욱 무성해진 숲과 자연을 접할 수 있다. 칠선계곡은 2008년 5월, 10년 만에 자연휴식년제에서 해제 되었다. 천왕봉까지는 아홉 시간은 족히 걸리는 난코스라 계곡 비경의 탐방만을 원한다면 대륙폭포까지가 적당하겠다. 추성리에서 대륙폭포까지는 왕복 여덟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지리산 주능선에 오르지 않고 계곡의 절경만을 감상하기에 한신계곡도 빠질 수 없다. 한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계곡의 물이 차고 험해서 한삼하다는 뜻으로 한신이 되었다고 한다. 마천면 백무동에서 세석까지의 10km 구간으로 한신평포까지는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첫나들이폭포, 가내소폭포, 오층폭포, 한신평포 등 지리산 계곡 가운데 가장 많은 폭포를 끼고 있으며 지리산 계곡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인공조림 – 함양상림

함양읍에는 함양상림이라고 부르는 너른 숲이 자리하고 있다. 이 숲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숲으로 그 역사가 무려 1,100여년에 이른다. 통일신라시대 진성여왕 때 함양군수로 내려와 있던 최치원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했다고 한다. 원래는 대관림으로 불렸으며 면적이 더 넓었지만 홍수로 가운데 부분이 무너지고 그 틈에 민가가 들어서며 상림과 하림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현재 하림은 훼손되어 상림만 유지되고 있다. 총 3만 6,000여 평에 이르는 상림은 참나무와 개서어나무류를 주종으로 모두 116종, 20,000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곳에는 함화루와 척화비, 이은리 석불, 문창후 최선생 신도비 등의 문화유적이 자리하여 숲과 함께 함양의 소소한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다. 함양상림은 천연기념물 154호로 지정되어 있다. **E&C**

09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유서 깊은 인공 숲, 함양상림 **10** 지리산 계곡의 위용이 느껴지는 가내소폭포 **11** 서원 주변의 해바라기 밭 **12** 화림동계곡이라고 불리는 남계천변은 여름 물놀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12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하다

일기분류: 생활일기

출 전: 조성당일기(操省堂日記)

시 기: 1616년 10월 16일 ~ 18일

인 물: 김택룡, 운심, 복이, 순좌의 처

장 소: 경상북도 안동시

저 자: 김택룡(金澤龍)

1616년 10월 16일, 김택룡은 이 날 운심이를 군내(郡內)로 보낸 무당[巫史(무사)]을 찾아보게 하였다. 김택룡은 또 복이(福伊)를 들췌 아들 김적이 있는 산양(山陽)으로 보낸 그 편에 편지를 써서 아들의 병을 물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18일에 푸닥거리[사신(祀神)]를 하였다고 말했다.

다음 날 10월 17일, 아침에 군내로 갔던 운심이 돌아왔다. 돌아와서 전하길, 순좌(舜佐)의 처를 부르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다고 핑계 대고 오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김택룡은 '순좌의 처는 무당이긴 해도 꽤 영리해서 운수도 점칠 줄 알아[추수(推數)] 괜찮건만. 그리고 우리 집에 오랫동안 출입하였으니 그 점도 안심인데...'라고 생각하였다.

10월 18일, 이날 김택룡은 예정대로 영주 산장(山莊)에서 푸닥거리를 하며 아들 김적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였다.

◆ 조선시대 질병

푸닥거리가 있던 날 밤 김택룡은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며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약간 술기운이 오르자 응인(應寅)을 데리고 계곡가의 임정(林亭)으로 갔다. 그 곳에서 김택룡은 낮처럼 밝고 맑은 달빛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리저리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깊은 밤 계곡의 누정에서 무슨 생각에 잠겼던 걸까? 아들의 병이 심해질수록 그의 시름도 깊어졌을 것이다. 급기야 푸닥거리까지 감행했던 김택룡이다. 묵묵하지만 애끓는 부정(父情)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조선시대는 후기로 내려올수록 유교적 생활방식이 점차 고착되었지만, 중기까지만 해도 시속(時俗)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였다. 유교국시를 내세웠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교뿐만 아니라 무속도 크게 성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16세기 경북 성주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이문건(李文健, 1494~1567)이 쓴 『묵재일기(默齋日記)』에도 잘 나타난다. 이문건은 풍수와 주역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운세를 추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이문건은 시묘생활 중에도 개장(改葬) 및 가족의 운수를 점쳐보도록 하는 등 관심을 보였는데, 점술가인 김자수와 자주 왕래하면서 온갖 대소사를 일일이 김자수에게 묻고 의논하기도 했다. 또 가족의 병환이 심할 때에는 반드시 김자수를 시켜 그 향방을 점치게 하였고 그의 권유로 무녀의 굿을 열기도 했었다. 이문건 집안의 가족들은 특히 병약해서 그 집에서는 해마다 2~3차례의 굿이 차려졌는데, 부인이 도말아 밥이나 떡을 준비하였다. 이문건의 집에서 무사가 행해진 가장 중요한 동기는 손자의 건강과 아들의 소생을 위하여 그리고 아들이 죽은 후 상심하여 병을 얻은 아내를 위해서였다. (이문건의 묵재일기 부분은 『조선시대 생활사』 중 '사대부의 가정 생활' 참조) 김택룡이 살던 때도 그랬다. 그도 역시 일기에서 운수를 점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준다. **E&C**

- 출처: 한국국학진흥원 -



은행 고객들이 늙고 있다

은행 고객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며 시중은행들의 마케팅 전략이 크게 바뀌고 있다. 계좌이동제 시행 등으로 ‘집토끼’를 지켜야 하는 은행들은 자산가 고객층의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 고객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은행들은 중장년층 고객들의 여가, 건강들을 챙겨주는 일종의 ‘집사’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주로 내놓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자산가 중장년층 고객을 지키는 게 은행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며 입을 모은다.

건강관리와 상속 한 번에 해결

경기도 내의 한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80대 김모 씨. 김 씨는 최근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고민이 깊다. 파킨슨병을 앓았던 다른 환자들의 사례와 비교하니 자신도 2, 3년 내에 치매에 걸릴 것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슬하에 아들을 둘 두었지만 아들들은 모두 해외에서 생활한다. 아내와는 몇 해 전 사별했다. 조만간 자신이 치매에 걸린다면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홀로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다. 김 씨는 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케어 트러스트(Care Trust)’ 상품에 가입했다. 자산을 은행에 신탁하면 은행이 임의후견계약을 해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아 신상을 보호해주고 신탁계약에 따라 살아있을 때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사후에는 병원비를 사용하고 남은 자산을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이 역시 계약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은 중장년층들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신을 누가 돌봐줄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의외로 크다는 점에 감안해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서울에서 혼자 살며 해외에 떨어져 있는 자녀를 대신해 은행에 자산관리와 병간호를 맡긴 70대 후반의 최모 씨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다.

노년엔 친구 사귀기도 중요

중장년층들은 직장에서 은퇴한 뒤 한 달만 지나도 하루를 버티는 게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심심함’과 ‘외로움’이다. 일을 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지루함과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며 홀로 쓸쓸히 보내야 하는 하루하루에 지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이들을 위해 은퇴한 중장년층들이 한 데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시중은행과 증권회사들이 선보이는 은퇴교실 등이 대표적이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명사특강을 열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식이다. 귀농 귀촌에 관심이 높은 중장년층을 위해 함께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함께 전원생활을 체험하다가 의기투합 해 같이 귀농을 계획하는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VIP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중장년층에게는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만큼 자존감도 중요하다. 직장생활을 할 때처럼 후배 직원들이 자신을 떠받들어 주지도 않고 일 하느라 그간 소원했던 가족들이 갑자기 자신을 반길 리도 없다. 그렇다고 풀이 죽어 지내기에는 남은 생이 길다. 시중은행들은 ‘기부’와 ‘VIP’라는 키워드에 집중했다. 특정금액을 병원에 기부하면 해당 병원에서 VIP에 해당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상품을 만든 것

이다. 기부에 따른 행복과 VIP 의료 서비스를 통한 행복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준 상품이다. 이 외에도 집으로 직접 몸에 좋은 유기농 채소를 배달해주거나 고객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자택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육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주는 금융회사도 있다.

중장년층 마케팅 선택 아닌 필수

은행들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장년층 고객의 발길을 붙잡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눈에 띄게 높은 금리를 주기 힘들어진 만큼 차별화한 ‘무언가’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7%이며 10년 내 고령층 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고객 중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누가 중장년층의 마음을 붙잡느냐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성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중장년층 전용 마케팅이 이미 보편적이다. KB금융경영지주연구소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 중 관리자산이 35만~100만 달러 이상인 고객에게 병원예약, 약처방,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식사제공, 심부름, 집수리 등 생활서비스와 장례계획까지 지원한다. 일본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중장년층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놨다. SMBC은행은 50세 이상 예금잔고 500만 엔 이상인 고객을 위해 세미나와 노후생활을 위한 가이드북 등을 주고 있다.

미즈호은행, 미쓰비시UFJ신탁은행, 일본생명보험 등도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생명보험은 일본 내 최고 전문의들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베스트닥터서비스’와 간병업체와 제휴해 자택방문 간병서비스도 한국 금융회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주요 서비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중장년층인 고객과 중장년층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고객들을 세분화 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은행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들의 노후 동반자를 챙겨주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충성고객층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C

모기와 전쟁이 매년 뿔라지는 이유

벌들조차도 더위에 지쳐 조는 듯한 나른한 여름밤. 하지만 그 꿀맛 같은 단잠을 깨우기에는 그리 큰 소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저 모기 소리 정도면 된다. 귓전에 울리는 앵앵대는 모기 소리에도 계속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신경이 무딘 사람은 별로 없다. 심지어 모기 소리보다 10만배나 큰 기차길 소음 속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기 소리는 참기 힘들 정도다.

이처럼 사람들은 기차길 소음보다 모기 소리를 더 싫어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싫은 것은 모기 소리가 아니라, 모기 그 자체이다. 모기에게 물리면 벌겋게 부어 오르고 가려울뿐 아니라, 운이 없다면 꽤 심각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처럼 모기는 작지만 그들이 옮기는 질병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모기들이 가벼운 가려움증과 발진 등을 일으키는데 그치지만, 작은 빨간집모기(일본뇌염), 중국얼룩날개모기(말라리아), 아에데스 알보픽투스(Dengue) 같은 모기들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밖에도 모기는 황열이나 웨스트나일열과 같은 질병도 모기에 물려 전염된다. 모기가 옮기는 질환이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는 말라리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약 500만명이 말라리아에 걸리며 이 중에서 100~200만명이 사망한다. 이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3세계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사망과 청력 손실의 주요 원인은 말라리아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기는 뇌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는 연간 300~900명이 모기가 옮기는 일본 뇌염으로 사망했다.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뇌염이 남긴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하곤 했었다. 비록 1970년대 이후에는 백신의 보급으로 발병률이 급격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모기는 우리에게 말라리아 원충과 뇌염 바이러스가 혼합된 질병이 폭탄처럼 인식되고 있다.

모기에 대한 인식이 '질병 폭탄'인 만큼 인류는 오랜 세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 왔다. 모기장을 둘러치고 모깃불을 피우고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가 서식하는 물 웅덩이를 없애 모기를 박멸하려고 했다.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와 황열 백신과 뇌염 백신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대처법도 등장했다. 또한, DDT를 비롯한 각종 살충제를 개발해 모기를 박멸하는 과격한 방법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했지만, 아직 모기의 박멸까지는 길이 멀다.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모기로부터 안전한 시기였던 겨울마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모기의 경우, 지난 2000년에는 5월 3일에서야 처음으로 발견됐었다. 하지만 매년 하루씩 발견 시기가 단축되어 2013년에는 4월 18일에 최초 발견이 보고되었을 정도로 출현 시기가 앞당



겨지고 있다. 심지어 추위가 한창인 11월~12월에도 모기가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최근 모기의 출현 시기는 더 빠르고 더 길어지고 있다.

곤충류에 속하는 모기는 기온이 평균 섭씨 14~41도 사이에서만 성충으로 활동할 수 있다. 모기의 활동시기가 빨라지고 길어진 것은 그만큼 기온과 환경이 따뜻하고 온화하게 변화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학자들은 모기의 등장 시기가 더 빨라진 것에는 온실 효과의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온실 효과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봄이 오는 시기가 빨라졌고, 이에 맞추어 모기의 활동 시기도 빨라졌다는 것이다.

모기만이 아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관측에 따르면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같은 대표적인 봄꽃들의 개화 시기 역시도 지난 30년 전에 비해 6~8일 정도 앞당



겨졌다고 한다.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기온 상승은 기온이 오르는 봄의 시작을 앞당겼고, 그 결과 봄의 전령사들도 이전보다 빨리 찾아오는 셈이다.

당달아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모기 역시도 바빠 오는 봄을 따라 날갯짓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은 모기의 출현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모기의 서식지까지도 넓히는 이중 효과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들은 주로 열대 지역에 서식하기에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았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내에서도 해발 1,624m인 케냐의 나이로비, 1,479m인 짐바브웨의 하라레 같이 고위도 지역은 서늘한 기온 덕분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는 '말라리아 안전지대'에 속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프리카 고지대 역시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게 됐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 곳 고산지대들의 기온이 올라가자 모기 역시도 따라 올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질병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이 같은 모기 서식지 확대 현상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모기가 사라지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 역시도 바뀐 생활 환경과 관계가 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도시화되고 조밀화 되면서 아파트의 보급이 늘어난 것이 모기에게는 호재(好材)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아파트에는 물탱크와 온수 탱크 같은 저수 시설과 지하 주차장의 배수구처럼 겨울에도 외부에 비해 기온이 따뜻하고 얼지 않는 '물웅덩이'가 늘 존재한다. 이곳에서 성충 상태로 겨울을 나는 모기들도 생겨나는 실정이다. 특히나 날개에 힘이 약해 높은 곳은 올라가지 못하는 모기들에게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그들의 날개를 대신해 더 높은 곳의 먹잇감(?)에게 데려다주는 로켓이 되고 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아파트 시설들이 모기와 전쟁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군인 모기에게 이롭게 이용되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길기만 했던 겨울이 끝나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두꺼운 겨울 옷을 벗어던지고 햇살의 따뜻함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봄날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모기와 귀찮은 전투가 이제 또 시작되려 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기존의 다양한 모기 방제 장치들에 더해 기존의 살충제보다는 생태계와 환경에 악영향을 덜 미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이전인 2억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온 모기들을 완전히 내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의 노력이 필요할 듯 보인다. 올해도 찾아올 모기와 전쟁에서 부디 무사하시길! E&C

Culture

Exhibition

헤세와 그림들 展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기 간 : ~ 11월 1일 장 소 :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그림들 展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기존의 진품과 함께 헤세의 작품의 세계관을 디지털 영상으로 재탄생 시켰다. 한차원 높은 기술력으로 감각적인 조명과 영상 관련 테크놀로지와 HD 프로젝터를 결합한 미디어 전시회이고 다양한 디지털 기법을 통해 재해석된 헤르만 헤세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1차원적인 회화 이미지를 전시구조물을 통하여 전면과 측면, 플로어 모두를 활용해 실시간 영상으로 구현하여 기존의 평면적인 전시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www.hesse2015.com

헤르만 헤세의 후손들로부터 '반드시 대한민국에 훌륭한 박물관을 건립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의 귀중한 가치와 의미를 영원히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전시한 2015 헤세와

Book

내사 핸드폰 없이는 몬살겠다

올해 여든 두살의 연로하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흔 세살 막내딸 순희씨가 써 내려간 잔잔한 가족스토리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자, 정겨운 우리 고향집 풍경이다. 그리고 잊고만 있었던 어릴 적 내 동생의 일기장처럼 참 순박하고 진솔한 글이다.

이 41편의 칼럼은 지난 2002년부터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에 연재해온 글들 가운데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는 '사모곡'의 주제로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준 글들이다.

아카시아나무의 그 은은한 향기처럼...

가정이 급속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요즘, 다시 한번 '가족'이란 단어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일깨워 주는 글들로 가득한 밥상이다. 아울러 이 칼럼집에는 60여장의 옛사진들을 함께 수록하여 마치 흑백 활동사진을 들여다 보듯 우리들을 그때 그 시절, 아련한 추억의 여행길을 따라 나서게 해준다.

김순희 저 / 글마당



Musical

시카고

기 간 : ~ 8월 8일 장 소 : 국립극장 해오름

31년간의 기다림,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상 가장 흥행하고 있는 미국 뮤지컬!

423개 이상의 도시에서 2,200만명 이상 관람한 뮤지컬!

19년 동안 미국 브로드웨이를 점령하고 있는 뮤지컬<시카고>!

1920년대 재즈의 열기와 냉혈한 살인자들이 만연하던 시대의 쿡카운티 교도소는 자극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여죄수들로 가득하다. 보드빌 배우였던 벨마 켈리는 남편과 여동생을 살인하고 교도소의 간수인 마마 모튼의 도움으로 언론의 관심을 끄는 가장 유명한 죄수. 그러나 곧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정부 프레드 케이슬리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온 코러스 걸 록시 하트가 자신의 유명세를 빼앗아가고 연변술과 임기응변에 능한 돈을 쫓는 변호사 빌리 플린마저 빼앗아가자 벨마는 분개한다. 혼자서는 모든 걸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벨마는 곧 록시를 설득하여 동맹을 맺으려 시도하는데……

www.ntok.go.kr



Movie

손님

1950년대, 지도에도 없는 산골 마을, 아무도 모르게 걸어둔 문을 열고 손님이 왔다.

어느 날, 떠돌이 악사 우룡(류승룡)과 영남(구승현) 부자는 서울로 가던 길에 우연히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골 마을에 들어선다. 시끄러운 바깥세상과 달리 촌장(이성민)의 강력한 지도 아래 모든게 평화롭고 풍족한 마을이지만 단 하나,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쥐떼들이 골칫거리다. 마을의 골칫거리인 쥐떼를 쫓아주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영남이의 폐병을 고칠 목돈을 준다는 약속을 믿고 우룡은 피리를 불어 쥐떼를 쫓아낸다. 하지만 그 날 이후, 마을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룡과 마을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부르지 않은 손님이 온 그 날 이후, 너희들은 어떻게 될까?

상영중



KEPCO E&C News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자 설명회 개최

회사는 지난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직원자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청렴도 측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반성 그리고 향상 방안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박구원 사장은 "청렴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커다란 중심축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공기업인 우리 회사 임직원의 청렴한 마인드 재무장과 실천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과 관련한 측정 목적 및 근거, 2014년도 회사 청렴도 측정 결과, 신문고 제도 및 부패비리익명신고시스템(레드휠) 등 기명·무기명 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참석자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사적인 계획과 직원자들의 솔선수범 향상 방안 등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청렴한 문화 조성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다.

● BNPP 2호기 원자로설치 기념행사

UAE BNPP 2호기 원자로설치 기념행사가 지난 6월 16일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건설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조직래 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하여 권해룡 주UAE 한국대사, 한전 해외부사장 등 관련사 주요 인사와 UAE 측에서 셰이크 함단 빈 자이드 부총리와 칼둔 갈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 장관 등 UAE정부 및 ENEC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원자로설치 기념행사는 지난 2013년 4월 15일 BNPP 2호기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원자로건물과 보조건물 시공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약 26개월만에 열린것이다. UAE 원전 1, 2호기의 사업전체 공정률은 5월말 현재 66.53%이며, 호기별로는 1호기 71.61%, 2호기 45.60%, 3호기 14.89%, 4호기 2.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UAE원전 2호기는 이번 원자로설치 이후 본격적인 기전공사를 거쳐 2018년 5월 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년 간격으로 3호기와 4호기가 준공될 예정이다.

● 가나 T2사업 전체전원계통병입 성공

우리 회사가 수행중인 가나 Takoradi T2 Expansion 사업이 지난 4월 30일 최초 전원계통병입에 이어 6월 10일 GT#31/32를 이용한 전체계통병입(Full-Synchronization)에 성공하였다. 최초 전원계통은 GT#31호기만을 대상으로 계통병입되었으나, 이번에는 GT#31호기와 GT#32호기 2대가 각각 45MW출력상태에서 ST Synchronization(2-2-1)을 통해 161kV Switchyard 전원에 계통병입되어 최대 부하 48MW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계통병입후 부하변동을 통해 MW Tes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증기순도(Steam Purity) 및 수질 등 모든 표본(Sampling) 수치도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계통병입의



성공으로 Takoradi T2 Expansion 사업의 실질적인 완료(Substantial Completion)를 위한 의미 있는 공정(Milestone)에 도달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EPC 수행 능력과 위상을 한층 높게 되었다. 가나 T2 사업의 모든 현장 직원들은 향후 종합시운전 및 성능시험도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해나갈 계획이다.

● 2015년 가동원전 계통설계기술용역 수주

회사는 지난 6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와 '2015년도 가동원전 계통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약 204억 원이며, 1년 동안 가동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분석, 안전해석, 건전성평가, 취역설비 개선, 설계변경서 작성, 인허가 지원, 발전고장 시 긴급기술지원 등 120개 과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사는 국내에 가동중인 24개 호기 원전의 계통, 구조물 및 기기에 대한 기술검토, 설계변경 및 긴급 기술지원 등을 적기에 수행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장정비 예방과 이용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 용역수행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높아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품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특별 세미나 개최

국제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특별 세미나가 지난 6월 11일 기준서 ITER 사업책임자를 비롯하여 제주대학교 교수, 전기공학 및 에너지공학과 석·박사과정, ITER TRO 등 약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국제핵융합실험로의 동작원리 및 건설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렸다. IO Staff인 Dr. Beltran의 핵융합실험로의 핵심설비인 Tokamak 설비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었고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상호간에 이해를 넓혔다. 국제핵융합실험로는 국제 토카막 실험로로 화석연료 고갈 위험과 환경문제를 대비해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최종 실증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대형 국제협력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프랑스 카다라쉬에 본부가 있다.

● 설계부문 협력업체 맞춤형 기술교육 실시

회사는 2015년도 상반기 설계부문 협력업체 맞춤형 기술교육을 6월 8일부터 18일까지 한 기인재개발교육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설계품질 향상과 협력업체 동반성장에 목적을 두었으며, 우리 회사 설계부문 26개 협력업체의 임직원 185명이 참석했다. 교육과정은 필수 일반, 원자력, 기계, 배관, 전기, 계측제어, 토목 및 건축분야 등 8개 분야 총 53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력업체 직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약식동원



약식동원에서는 경희대학교 약선 전문 교수이며 동의찰식전(www.tttfood.co.kr) 대표이신 김남희 교수를 초청하여 '약선(藥膳)과 의선(醫膳)요리'를 주제로 지난 6월 25일 공개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좌는 '계절에 맞는 약선과 의선'이라는 주제에 맞게 우리 식탁에 대한 바른 먹거리와 계절에 맞는 먹거리의 중요성을 테마로 하였다. 특히 효소에 대한 이해와 오해, 김치에 대한 이해, 쌀에 대한 명암 등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었다. 다음 약식동원 강좌에서는 약선 요리를 손수 만들고 시식도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사랑 봉사단

경영관리본부

박구원 사장을 비롯한 우리 회사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5월 20일 1사1촌 결연마을인 경상북도 김천시 작내리와 대양리 일대에서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과수 전지작업 등을 도왔다. 또한, 우리 회사 협력병원인 광동한방병원의 의료진과 동행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아미용 봉사활동을 병행하였다. 회사는 2011년과 2014년 김천시 작내리, 대양리와 1사1촌 결연을 맺고 농번기 일손 돕기, 사랑의 연탄 나눔, 한방의료 지원, 아미용 봉사 등 농어촌 결연사업을 펼쳐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해 왔다. 박구원 사장은 "김천혁신도시로의 이전으로 김천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전 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천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 애경사

결혼



서정우 대리



조동건, 서윤지 사원

- ▶ 경영)경영지원처 최병도 부장 자녀 : 5월 30일 엠클래스컨벤션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김원중 부장 자녀 : 5월 30일 호텔리츠컨벤션웨딩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우안식 대리 : 6월 6일 호텔카리스
- ▶ 원자력)사업책임자실 김태옥 상무 자녀 : 6월 6일 명동성당
- ▶ 경영)인사노무처 오정환 사원 : 6월 6일 서울도림동성당
-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조동건 사원 : 6월 7일 포스코센터
- ▶ 플랜트)사업개발처 서윤지 사원 : 6월 7일 포스코센터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김의준 부장 자녀 : 6월 7일 보테가마지오
- ▶ 플랜트)전기계측기술그룹 서정우 대리 : 6월 7일 연세대학교동문회관
-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양경기 대리 : 6월 13일 이펠가모 잠실점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최철진 처장 자녀 : 6월 13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원택연 부장 자녀 : 6월 13일 대전유성 호텔ICC

부음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김동균 차장 모친상 : 5월 24일 서울시동부시립병원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정기훈 부장 모친상 : 5월 24일 대전유성선병원
-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조인석 부장 부친상 : 5월 31일 성남시장례식장
- ▶ 플랜트)전기계측기술그룹 이상윤 부장 장인상 : 6월 1일 고대구로병원
- ▶ 원자력)원자력기술그룹 김용건 차장 부친상 : 6월 7일 산본원광대병원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백세진 처장 장인상 : 6월 8일 대전을지병원
- ▶ 원자력)원자력기술그룹 오대근 사원 장모상 : 6월 9일 창원시립삼복공원장례식장
- ▶ 경영)경영지원처 강호현 부장 모친상 : 6월 10일 건국대학교병원
- ▶ 플랜트)전기계측기술그룹 김현우 부장 장인상 : 6월 19일 서울성모장례식장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권천규 부장 장인상 : 6월 19일 한양대학교병원

동우회 동정

제 63차 이사회 개최

한전기술동우회는 제63차 이사회를 6월 16일 개최하였다.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기금처분(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하였다.

한국전력기술(주) 임원과 오찬 모임

한전기술동우회 회장단은 지난 5월 19일 한국전력기술(주) 임원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우회 회장단 8명과 한국전력기술(주) 박구원 사장을 포함하여 김순견 감사, 각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한전기술동우회 및 (주)한기서비스 사무실 이전계획

한전기술동우회는 7월 10일까지 삼성동 엘지트윈텔2차(1705호) 한기동우회관으로 이전 예정이며, (주)한기서비스는 7월 13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회원소식

박종대 회원, (주)제이스코리아 연구소장 취임(5/15)

결혼

강웅희 회원 장남 : 5월 17일 컨벤션벨라지움
이수중 회원 장녀 : 5월 2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김원중 회원 장남 : 5월 30일 호텔 리츠
이진표 회원 장녀 : 6월 6일 노블리티웨딩
박상수 회원 장남 : 6월 6일 엘타워

부음

지만선 회원 모친상 : 5월 27일 동국대병원
박성두 회원 장모상 : 6월 5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이상구 회원 모친상 : 6월 9일 부산 동래대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헬스클럽 중도 해지 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Question

헬스클럽 계약 후 이용 5일째 되는 날 개인 사정으로 해지 요청 시, 환급 금액은?

서울에 사는 A씨(여, 20대)는 집 근처에 있는 B헬스클럽과 6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33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용 5일째 되는 날,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B헬스클럽 측에서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계속되는 A씨의 요구에 B헬스클럽은 1개월 정상 요금인 110,000원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

Answer

해지일까지의 이용 요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28만여원 환급 가능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헬스클럽 장기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씨 사례의 경우, 해지일까지의 헬스클럽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5일 이용료(1일 이용료=330,000원÷180일=1,833원)인 약 9,165원과 위약금 33,000원을 공제한 차액, 대략 287,835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헬스클럽 계약 시, 꼭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 단기간 이용해 본 후 건강상태, 직장 근무여건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인율에 현혹되어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한다.
-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지 계약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지 시에 등록된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정상 요금을 적용한다는 특약을 정하고 있지 않는지 계약서(신청서, 등록서 등) 서명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사업자가 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몸자리

몸자리를 옮기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이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워 자는 땅의 기온도 달라지고 숨쉬고 먹는 공기와 물도 달라지고 부대껴 사는 사람도 달라지고 맺어야 할 인연도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달라진 기온과 다른 환경에 내 몸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쉽기도 하겠지만 쉽지만은 않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어렵지만 앓을 것입니다. 몸자리 잘 만드시고 내내 보존하고 여여하시길 부디 기원합니다~

글·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